

2013년06월05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⑤	②	①	①	⑤	④	③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③	⑤	④	④	⑤	②	①	①	②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 • 오답 • 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서양 사상가가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식물이 빛으로 향하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모든 존재의 본질은 살고자 하는 맹목적 의지이다. 인간은 이러한 의지가 구체화된 욕망덩어리이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새로운 욕망이 다시 고개를 치켜든다. 욕망은 그 본성상 고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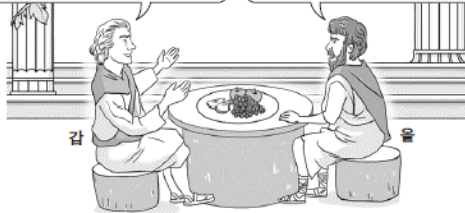
- ① 맹목적 의지를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는 존재이다.
- ② 금욕을 통해 영혼의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역동적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다.
- ④ 동정심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존재이다.

⑤ 이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존재이다.

2.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정의는 감자의 이익이며 감자만이 이익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제 생각에 정의는 자신의 영혼을 이루고 있는 이성과 기개와 욕구가 각각 그 기능을 잘 발휘하여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 보 기 >

- ㄱ. 갑은 정의를 강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 ㄴ. 을은 각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 ㄷ. 갑은 정의가 경험을 통해, 을은 이성을 통해 파악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현실에서 정의의 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사회사상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재와 폭력성으로 얼룩진 기존의 사회주의는 비판적 정신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었고, 자본주의도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 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①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구한다.

② 모든 정치적 조직, 규율, 권위의 철폐를 추구한다.

③ 능력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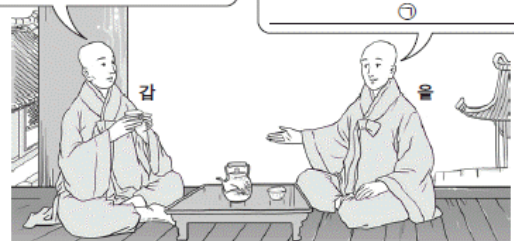
④ 국가 개입을 배제하여 시장 경쟁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생산 수단의 공유를 추구한다.

4. 그림은 중국의 불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깨달음엔 본래 나무가 없고, 밝게 비추는 거울엔 받침대가 없습니다. 불성(佛性)은 늘 맑고 고요하니, 그 어디에 티끌이 끼겠습니까? 그러므로 ㉠



①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우쳐야 합니다.

② 깨달은 후에도 반복하여 수양해야 합니다.

③ 깨달음조차 잊고 세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④ 점진적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전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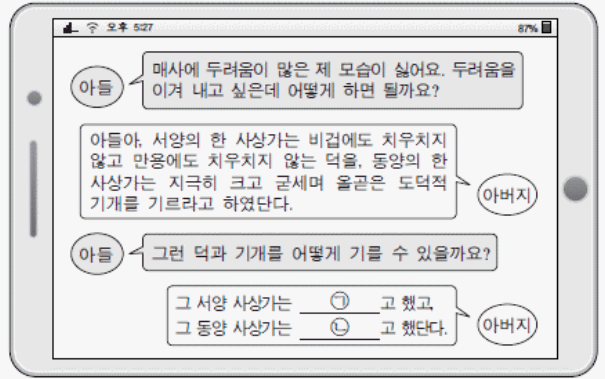
(가)	배우거나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일러 본성[性]이라 하고, 배우면 능해지고 노력하면 완성될 수 있는 힘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러 인위[僞]라고 한다.
(나)	<div>○ ㉠은/는 경건함이 없는 외형적인 사치보다는 차라리 경건함이 있는 검소함이 더 낫다.</div> <div>○ 윗사람이 ㉠을/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을 리가 없고, 윗사람이 의[義]를 잘 지키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리가 없다.</div>

- ① 도덕적 생활과 사회적 실천의 기준이다.
- ② 성인(聖人)이 제정해 놓은 통치의 표준이다.
- ③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분배적 원리이다.
- ④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위적 규범이다.
- ⑤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적 준거이다.

6.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 생명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니,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게 된다. 선(善)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악(惡)을 저질러 형벌에 가까워지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떳떳함으로 삼으면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하여 수명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① 경험적 인식을 통해 불변적 자아의 영원성을 깨닫는다.
② 이성적 분별을 통해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린다.
③ 모든 감각이나 사유 능력을 발휘하여 사물의 변화에 임한다.
④ 사물의 소박한 본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잘 실현되도록 한다.
⑤ 획일적 평등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인식의 상대성을 초월한다.

7.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의 메신저 대화이다. (㉠), (㉡)에 들어갈 아버지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①	두려움을 항상 억제하라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하라
②	두려움을 항상 억제하라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라
③	덕스러운 행위를 습관화하라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하라
④	덕스러운 행위를 습관화하라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라
⑤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라	두려움을 항상 억제하라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8. (가)의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갑,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갑, 을) [3점]

(가)	(나)
갑: 서양 문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의 도(道)를 밝혀야 한다. 우리 것[正學]이 융성해지면 저들의 것[洋物]이 사라질 것이다. 을: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事人如天].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일지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워야 한다.	성리학적 신분 질서 유지 외세 배격 I II 외세 수용 IV III 성리학적 신분 질서 거부

- ① I, III
- ② I, IV
- ③ II, III
- ④ II, IV
- ⑤ IV, I

9.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성(性)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情)에 해당하는 사단과 칠정 또한 이와 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을: 정에 대해 '사단이다, 칠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검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칠정을 검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검할 수 있다.
병: 사단은 인의예지의 근본이므로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확충해야 한다. 사단은 심(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性), 이(理), 덕(德)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① 갑은 사단을 선악이 함께 존재하는 정(情)으로 본다.
- ② 을은 기(氣)가 발(發)하면 이가 따라 발한다고 본다.
- ③ 병은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사단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사덕(四德)을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라고 본다.
- ⑤ 을, 병은 사단 이외에 또 다른 순성한 정이 있다고 본다.

10. 갑, 을, 병이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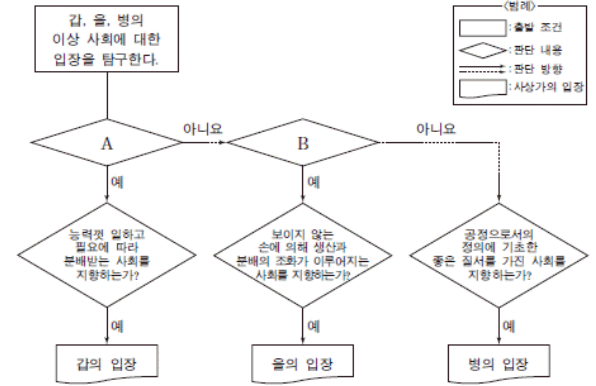
갑: 성(性)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情)에 해당하는 사단과 칠정 또한 이와 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을: 정에 대해 '사단이다, 칠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검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칠정을 검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검할 수 있다.
병: 사단은 인의예지의 근본이므로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확충해야 한다. 사단은 심(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性), 이(理), 덕(德)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 상황〉
같은 학급의 한 친구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A는 그 친구를 어떤 식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까 봐 아직 망설이고 있다.

—〈보기〉—
ㄱ. 갑: 사단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힘든 친구를 도와주렴.
ㄴ. 을: 탁한 기질을 바로잡아 착한 본성을 발현하여 도와주렴.
ㄷ. 병: 선(善)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친구를 도와주렴.
ㄹ. 갑, 병: 타고난 사덕(四德)을 확충하여 주체적으로 도와주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1. 그림의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ㄱ. A: 개인의 타고난 능력의 발휘를 긍정하는가?
ㄴ. A: 계급 투쟁을 통한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가?
ㄷ. B: 경제 활동에 있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긍정하는가?
ㄹ. B: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2.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주 만물은 신의 양태이며,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최고선은 이성을 통해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오는 평온함, 즉 행복이다.																								
(나)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A)</td><td></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p>[가로 열쇠] (A):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 중심주의 (B):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래 그러한 성품'. □□지성</p> <p>[세로 열쇠] (A): 개념.</p>									(A)					(B)										
		(A)																							
	(B)																								

- ① 경험에 의해 파악되는 필연적 질서이다.
- ② 이성적 관조를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③ 우주 만물을 창조한 완전한 신 그 자체이다.
- ④ 인간 의지에 의해 작동되는 유기적 체계이다.
- ⑤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다.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 [\[다운로드\]](#)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 [\[다운로드\]](#)

13.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치지(致知)가 격물에 달려 있다.'고 함은 나의 앎을 극진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인심의 영명함으로 알지 못할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 가운데 이치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나) 격물(格物)의 '격'은 '바로잡는다[正]'는 뜻이다. 격물은 그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 그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의념[意]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 바르지 못함[惡]을 없애 그 바름[善]을 회복해야 한다.

- ① 마음과 이치를 별개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앎[知]과 실천[行]을 선후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이 도덕 실천의 주체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경전 공부와 사물에 대한 탐구를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양지(

14.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ㄴ)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문제: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존재이다. 신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완전한 신이다.

을: 신은 신앙의 대상이며, 신의 존재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보편은 신 속에, 개체 속에, 인간 정신 속에 있다.

병: 신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이다. 실재하는 것은 개체뿐이고, 보편은 이름으로만 있다.

●학생 답안

갑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수용하여 이 세계를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로 구분하였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영원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주어진다고 보았다. 병은 이성적 철학의 공격으로부터 신앙과 신학을 지켜 내기 위해서 ㉣신앙에서 이성을 신학에서 철학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의 존재 문제와 관련하여 ㉤갑, 을은 신이 존재한다고, 병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갑, 을, 병 모두 종교적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 신의 계시를 중시하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ㄴ)

15.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대표자와 시민들 간의 입장 불일치와 같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을: 어떤 서양 사상가는 윤리적 행위의 기반을 담론 공동체에서 찾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상가의 견해에 의하면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 ① 비전문가를 배제하여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 ② 지도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③ 의사 결정 과정을 일원화하여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④ 정치적 비판을 금지하여 합리적 공론의 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⑤ 열린 토론으로 사회 쟁점에 관해 깊이 있게 심의해야 합니다.

16.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를 통해 도덕적 판단의 일치에 이를 수 있다.
을: 도덕성은 법칙으로부터 유발되는 의무의 관념이 동시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며, 단지 의무에 맞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 ① 갑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유용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 ② 을은 감정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본다.
- ③ 갑은 공감의 능력을, 을은 선의지를 후천적인 것이라고 본다.
- ④ 갑, 을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본다.

17. 다음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칙을 아는 것보다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악행 금지와 규범의 엄격한 준수 같은 최소한의 윤리를 따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주목해야 한다.

— <보기> —
ㄱ. 도덕적 행위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한다.
ㄴ. 덕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맥락을 중시한다.
ㄷ. 행위자의 성품이 아닌 개별 행위의 도덕성에 주목한다.
ㄹ. 도덕 판단에서 구체적 상황보다 추상적 원리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8. 그림의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가 물질적 토대에 근거한 필연적 역사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분업의 활성화, 개인 권리의 신장, 정신적인 요소 등이 선택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2

그러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정신적인 요소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 정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자본주의 정신은 구원 예정설과 소명 의식에 기반한 직업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업관은 ㉠

4

- ① 이윤 추구 활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 ②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공동 소유를 강조하였습니다.
- ③ 노동을 특정 계급만의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 ④ 경제적 평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 ⑤ 절약보다 소비 활동을 중시하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19.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빗금 친 A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며, 참된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마음에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을: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병: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보다 더 수준이 높으므로 쾌락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 ①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가?
- ② 행복해지기 위해 공격적인 삶을 회피하는가?
-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의 원리인가?
- ④ 쾌락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인가?
- ⑤ 더 많은 쾌락이 보장되면 고통을 수용하는가?

20. 그림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

우리는 흔히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말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말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자유는 서로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중략)… 외부의 강제나 방해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막상 주어진 사람들은 적극적 자유를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성찰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아실현을 할 수도 없고 유대감을 상실하여 고독감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외부적 권위에 우리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소극적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 ① 소극적 자유의 향유를 통해 고독감을 극복하자
- ②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자유를 제한하자
- ③ 자율적 성찰을 통해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자
- ④ 외부적 권위를 수용하여 소극적 자유를 실현하자
- ⑤ 각자의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자